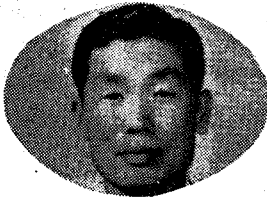




가득이나 춤고 지루한 겨울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던 지난 73년의 「油類波動」, 「아랍」諸國과 「이스라엘」간에 벌어졌던 「中東戰爭」은 이른바 「石油武器化」란 新用語를 등장시켰고 이의 衝擊波로 世界經濟는 氷點下의 成長을 기록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게 아니다. 「石油武器化」에 着眼한 資源保有國들은 너도, 나도 「資源의 國有化」를 宣言하기에 이르렀고 点火된 「資源내셔널리즘」의 거센 소용돌이는 國際景氣를 견잡을 수 없이 휘둘러 놓았다.

資源保有國들의 「國有化」 움직임은 1952년 제 7차 「유엔」 총회에서 「우루구아이」代表가

物資節約으로 資源戰對備



會 泰 具

(國會議員)

『天然의 富를 國有化한다』는 議題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결과 1962년 12월 「유엔」總會는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的 主權에 關한 宣言』을 採擇, 天然의 富와 資源에 대한 永久的 主權에 關한 國民 및 民族의 權利는 그 國家發展과 國民의 福祉를 위하여 行使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明確히 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各國의 主權思想을 鼓吹 시켰다. 이에 따라 資源保有國들은 自國資源에 대한 支配權의 回復을 위해 점차 外國企業의 國有化를 추진하고 있고 生産國 내지 輸出國機構의 設立이나 商品協定을 協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귀에 너무나 생생한 OPEC(石油輸出國기구)나 OAPEC(「아랍」 석유수출기구)들은 그 좋은 例로서 오늘날 世界의 油類價를 左之右之하고 있으며 國際景氣의 浮沈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그

밖에 CIPEC(銅輸出國政府間協議會), IAB-PC(「보크사이트」生産國聯合) 등이 共同的 利益을 追求키 위해 設立됐는데 이러한 資源 保有國들의 強力한 集團의 實力行使야말로 次後의 世界經濟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아닐수 없다.

資源의 種類는 다양하다. 油類·石炭 등의 「에너지」 資源을 필두로 重化學工業資源·食糧資源·海洋資源·水産資源·水資源 등 物量的 측면에서 따져보더라도 그 수요는 방대하다.

이러한 資源의 大部分은 주로 先進工業國에서 消費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美國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資源의 賦存量이 적으며 世界 主要資源의 約 80% 이상이 東南亞「아프리카」 등 開發途上國에 偏在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資源現況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硫黃·天然고무·岩鹽 등 主要工業界 天然資源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一部賦存되어 있는 天然資源도 그 量이나 質이 매우 貧弱하여 資源의 貧困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解放前까지는 쌀·黑鉛·鐵鑛石 등 一部資源을 輸出資源의 自給自足を 이루어 왔으나 急速한 人口의 增加, 工業化의 進展으로 많은 資源을 外國에서 輸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主要資源의 輸入量을 國內의 資源消費量의 增加와 함께 매년 急速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1960~70년에 이르는 10년간 主要原資材의 年間 需要增加率は 平均 33.4%로서 이는 同期間의 GNP 成長率 9.3%를 上廻하고 있으며 輸入量도 平均 約 5배로 크게 늘었다.

그 結果 우리 나라의 主要 資源의 國內自給度는 平均 29%以下로 極히 낮으며 工業界 原資材의 海外依存度는 輸出增大와 工業化의 進

展에 따라 繼續 增大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이처럼 이렇다할 賦存資源 하나없이 「工業立國」의 命題를 걸머지고 있는 우리 나라가 소용돌이치는 「資源내셔널리즘」의 激浪을 헤쳐나갈 길은 어떤것일까. 여러 가지 側面에서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크게 長期的인 眼目에서 보는 것과 當面한 課題로 나눌 수 있겠다.

前者는 國家가 綜合政策을 통해서 對備해가는 한편 國民的인 呼應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資源節約型 産業構造의 改善이라든지, 武器化될 수 있는 資源 中 代替資源의 開發등을 들 수 있다. 또 技術向上, 即 人力資源의 開發도 國家가 長期的 계획으로 推進해야 할 課題일 것이다.

다음으로 當面한 課題, 資源戰에 對備해서 온 國民이 效率의이면서도 組織의으로 卒對處해야 할 課題가 있다. 지금 우리가 汎國民的 運動으로 展開하고 있는 物資節約運動이다.

지난해 10월 大統領閣下의 指示에 따라 政府와 企業體 그리고 온 國民의 積極的인 參與로 推進되고 있는 物資節約運動은 그간 刮目할만한 成果를 거두었다.

物資節約이 비단 어제 오늘에 始作된 것은 아니고 또 누가 시켜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넉넉하다고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式의 思考方式은 오늘을 살아 가는 生活人의 姿勢가 될 수 없다.

있진없진 大韓民國의 國民이라면 우리 나라가 當面한 現實을 直視하고 그 必要性에 따라 物資를 아껴야 할 것이다.

누가 하라고 해서 마지 못해 電燈을 줄이고 確認·團束을 한다고 해서 누가힘으로 중이한 장을 아껴쓴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節約

의 姿勢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막대한 金額의 外貨를 支拂하
이 認識해서 비싼 外貨로 사들인 輸入物資를
면서 外國의 物資를 導入해 오고 있다. 우리
가 支拂하고 있는 外貨는 곧 우리 스스로의
담을 흘려서 벌어들인 貴重한 것이다. 이러한
外貨가 매년 우리 온 國民이 한덩어리가 되어
벌어들인 額數以上 海外로 나가고 있다. 이른
바 「貿易赤字」란 것이다. 石油·종이·설탕
등을 사들이기 위해 우리는 해마다 收入보다
支出을 많이 해왔다는 말이다. 일반 家庭에서
도 賢明한 主婦는 「赤字家計」를 黑字로 돌리
기 위해 家族들의 節約을 要求한다. 國家도
마찬가지다.

累積되는 貿易赤字를 메우기 위해 살림을
맡은 政府는 國民 여러분의 勤儉節約을 要請
한 것이다.

主婦의 요구에 따라 온 家族이 설탕 한순
갈, 石油 한방울, 종이 한장을 아껴 나가듯
온 國民이 一心해서 손쉬운것 부터 우리

周邊에서 하나 하나 절약해 나가자는 것이
다.

우리는 지금 重大한 岐路에 섰다. 내일의
繁榮된 經濟自立을 위해 땀·흘려 모은 外貨로
사들인 輸入物資를 節約할 것인가, 아니면 「資
源武器化」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 것인가. 우
리는 먼저 「資源내셔널리즘」의 國際情勢속
에서 輸出增大와 工業入國의 課題를 안고 있는
우리 實情을 알아야 겠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쓰는 돈이 더많은 우리의 實情을 깊
아겨써야 겠다.

곧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最善의 愛國
임을 銘心해야 겠다.

우리 經濟를 時時刻刻으로 압박해 오는 資
源戰에 對備해서 資源節約型 產業構造의 改善
이나 代替資源의 開發, 人力資源의 開發 등
도 重要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모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物資節約運動이야 말로 우리를
살리는 自救運動이요, 沈滯된 景氣를 回復시
키는 最上의 良策을 꼭 알아야 겠다.



三養食品·自家飼育牛로 製品生産

三養食品(대표·全仲潤)은 國內 처음으로
순전히 肉食用으로 사육한 肥肉牛를 食品加
工原料로 직접 공급, 제품생산을 시도함으
로서 맛과 영양면에서 신전도를 더욱 높이
게 됐다.

三養食品은 3월 28일부터 방계회사인 三

養畜産開發(株)의 大關嶺大單位牧場에서 매
일 4,5頭, 월간 1백 50여 頭의 肥肉牛를 自
家 供給라면의 스프링 원료로 쓰기 시작,
우리 나라에선 처음으로 大單位牧場에서 과
학적인 방법으로 肉用만을 목적으로 사육한
優良牛를 직접 食品加工에 調達하는 系列作
業의 첫 케이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三養畜産 大關嶺牧場은 母會社인
三養食品이 72년부터 18億을 투입, 6개년
계획으로 1천 9백 정보의 大單位牧畜園地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제2차 분할 사업이 진
행중인데 현재 肥育牛 2천 頭, 면양 4백 頭를
사육하고 있으며 올해엔 乳牛 2백 頭, 닭 3
萬 首를 입식할 예정으로 목표년도까지엔 5
천 두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